

■ 2018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(1차) 도서선정 심의총평(시)

- 사업명 : 2018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(1차)(시)
- 회의일시 : 2018. 11. 2(금) 10:00~16:00
- 회의장소 : 문학나눔 회의실

2018년도 제1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시 부문에 응모한 시집은 총 521종이었다. 이 중 12명의 예심위원 심의 끝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144종이었다. 이 많은 시집을 한 달 동안 읽은 본심위원들은 한편으로는 황홀하고 즐거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역스럽기도 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.

우선 자본이 전지구화 하고 대중문화산업만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집들이 그토록 많이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. 이 중 오로지 소유욕뿐인 거친 자본문명 속에서도 내밀한 존재의 심연과 꿈을 들여다보는 시들, 사람살이의 애환을 버무려 공명의 감동을 끌어내는 시들, 관습적이고 감각화 한 삶과 세계에 성찰과 인식의 충격을 주는 시들의 성찬을 통해 우리 시대 한국시문학의 한 성과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, 이 시집들은 감각과 현실과 미학을 두루 갖춘 것들이었다. 반면에 미처 시적 긴장이나 자기만의 표현에도 이르지 못한 채 자비출판의 형태로 쏟아져 나오는 시집들, 환타지와 리비도적인 욕망에 빠진 소통 불가능한 개인 언어들, 그리고 여전히 큰 목청으로 구호를 일삼는 리얼리즘 시들과 화려한 이미지나 상상력이 상투적인 철학의 옷을 입은 채 구체적 현실을 팽개쳐버린 시들의 파탄은 안타깝기만 했다.

그럼에도 본심에 올라온 144종의 시집 가운데 71권을 선정하는 데는 4명의 심사위원 간에 그다지 큰 이견이 없었다. 한 달 동안 각자가 어떤 조건도 두지 않고 오로지 우수한 작품만을 선정한다는 생각으로 읽어 매긴 채점을 종합한 결과 최종적으로 71권을 선정했다. 선정된 결과를 놓고 보니 지역과 신진들에게도 일정 비율의 혜택이 돌아가서 다행이었는데,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출판사별 선정 종수에 제한되어 썩 훌륭한 시집들이 탈락되고 만 것이었다.

2018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심의위원 일동